



◆ 인천해광학교(교장 명선목)에서는 지난 25일부터 31일간 '2009 인천시장애 전국 시각장애인골볼 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오른쪽 경기 모습.



### 최고의 조리사가 되는 길

서서울생활과학고, '에드워드 권' 특강 실시



◆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특강 실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교장 황정숙)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가 주관하는 ‘2009년 전문계고 명인명장 특강’을 열었다. 11월 25일 열린 이번 특강은 전(前) 버즈얼어랍 호텔 수석총괄주방장을 역임한 세계적인 요리사 ‘에드워드 권’이 강사로 나서 더욱 그 의미를 더했다.

이 학교 국제조리학과와 1-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조리의 비전과 최고의 조리사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요리사로서의 ‘미래의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한편 이 학교 국제조리학과는 지난 2001년 문을 열어 현재 학교의 특성화학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려 경희대, 경기대, 세종대 등의 호텔조리, 외식경영, 조리과학 등 조리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있으며, 한국국제 요리경연대회 등 각종 요리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전국 기능경기대회 동상 수상 등 다수의 수상실적을 올렸다.

### 문화부, 저작권침해 범죄수익금 첫 환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초로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에 환수에 나섰다.

콘텐츠 불법복제로 얻은 수익의 환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100여명에 가까운 콘텐츠 불법 복제 업자들이 무더기로 사법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에 밝힘에 따라 앞으로 콘텐츠 불법복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함께 추진한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의가 입증된 6개 워드업 업체의 대표자 7명과 저작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이용자(해비업로더) 5명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의 해비업로더 75명도 곧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문화부는 사법 처리뿐 아니라 피의자들이 불법복제로 얻은 수익 중 11억9000만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규정,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함께 불법 저작물 업로드로 5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해비 업로더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천건 이상 업로드한 자료 100만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을 수수한 기타 해비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래승 기자 krs@eduyonhap.com](mailto:krs@eduyonhap.com)

## “눈을 가려도 보여요!”

### 2009 인천광역시장애 전국시각장애인 ‘골볼’ 선수권대회 국가대표선발전

인천해광학교(교장 명선목)에서는 지난 25일부터 31일간 ‘2009 인천시장애 전국 시각장애인골볼 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 골볼협회 주관으로 인천시 골볼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회 참여를 통한 골볼 인구 저변확대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교류 기회를 제공해 상호간 스포츠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볼은 무게 1.25kg, 둘레 76cm로 소리가 나는 방울을 넣은 공을 가지고 같이 18

m. 넓이 9m의 마룻바닥 양쪽에 설치된 골대에 공을 넣는 방식으로 1개 팀당 3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각 10분씩 20분간 진행된다.

이번 경기는 조별 리그 후 4강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렸으며, 시상은 남·여 각 1위팀에 150만원, 2위 100만원, 3위팀에 50만원이 수여됐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인천·서울·경기·충남·충북·부산·전주 등 7개 지역, 11개팀이 참가하는 대회로 인천시 선수단은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전 남·여 종합 우승을 차지하고, 올해 종합 2·3위에 올라 유감 없는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남자부 1위와 2위는 인천과 경기팀이 차지했으며 3위는 인천해광학교팀에게 돌아갔다.

여자부 1위는 충주 성모학교, 2위 인천 동문, 3위 인천해광학교팀이 수상했다.

한편, 인천 동문팀의 주장 홍성욱 선수가 최우수선수상, 인천 동문팀의 김병훈 선수가 페어플레이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인천지역 팀의 활약이 돋보였다.

27일 폐회식에는 협회관계자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 있는 인사들이 모여 3일간의 열정을 축하하고 우승팀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내년 2010 광주아시안게임은 물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대회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시각장애우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한 발걸음을 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광학교 명선목 교장은 “우리 시각장애 학생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마음껏 움직이는 모습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골볼’은 전쟁 실명용사들의 재활을 위해 처음 고안된 후 재활과 놀이의 수단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이후 스포츠 형태로 발전해 1976년 토론토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경기 종목으로 처음 채택됐다. 국내에는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김래승 기자 km@eduyonhap.com](mailto:km@eduyonhap.com)

### 서울 서부청, 초등 영어교육 나눔제 개최

현직 담당교사, 원어민 교사 등 260여명 참여...정보공유 계기 돼

서울 서부교육청(교육장 이정관)은 11월 24일 교육청 강당에서 관내 초등 영어담당교사와 원어민 교사 등 260명이 참여한 ‘서부 영어교육 나눔제’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교육청의 올 한해 영어교육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영어활동 활성화 실천학급’ 사례 발표, 영어드라마 페스티벌 영상 자료 관람, 영어 수업자료 전시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청이 관할 지자체(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어활동

활성화 실천학급’은 지구별로 1개 교씩 총 7개교를 공모에 의해 선출해 운영 중이다.

‘영어 실천학급’은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실천적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나눔제에서는 ‘영어 실천학급’의 연구 성과물, 여름 영어 캠프 운영 자료,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거점학교 및 초등교사 영어연수거점학교 운영자료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료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또 영어담당교사들이 교수학습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특히 수업자료의 활용사례를 동영상으로 제공해 참가한 교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영어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활용으로 교사들의 영어 수업 능력이 올라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구사능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원석 기자 yw@eduyonhap.com](mailto:yw@eduyonhap.com)

### 2세 미만 사용금지 성분 감기약 판매업체 적발

어린이들의 감기약 복용법을 잘못 적어온 제약업체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준수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표시기재를 위반한 4개 업체 4개 품목을 찾아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비충혈제거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 등으로 쓰이는 26개 성분에 대해 2세 미만 유아의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용법·용량을 ‘1~4세 2.5ml’ 등으로 기재해왔다.

지난해 4월 식약청은 국내에서 허가된 감기약 568품목 중 염산

수도에페드린 등 26개 일반 감기약 성분이 함유된 국내 의약품 166개 품목에 대해, 이들 의약품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아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번에 적발된 4개 품목은 코오롱제약 엑스코프시럽, 일동제약 재담시럽, 근화제약 토포렉실시럽, 씨제이제일제당 화이투벤생시럽 등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조업체에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찰 지방청으로 하여금 적발된 표시기재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 교육연합신문 학생기자 도전하세요!

교육연합신문은 교육·교육정보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 학생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교육연합신문은 학생기자단을 통해 학교·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며, 학생기자단은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출된 학생기자는 기사를 쓰는 것을 넘어서, 문예작품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자는 교육연합신문에서 다루는 모든 기사를 작성하며, 학생기자단에서 활동하는 동안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자는 다양한 학교에서 활동하며, 취미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며, 학생기자단은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자는 다양한 학교에서 활동하며, 취미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며, 학생기자단은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제 1기 학생기자단 모집

- 모집기간: 2009. 11. 10(수) ~ 2009. 11. 10(수) 18:00
- 모집인원 및 대상: 초등 4~5, 6학년, 중학교 1~2학년 (교육연합신문 기자)
- 명예기자 혜택: 기자 활동 방법 및 언론 교육, 명예기자증, 기사 발표 활동에 참여할 기회, 문화활동, 인형극 발표(배우) 활동, 공연이나 전시회 이벤트에 무료 관람 또는 할인권 제공, 학생 기자들 모임
- 제출서류: 자기소개서(2면짜리 1쪽), 본인 명의로 쓴 자기소개서 - 10 pages, A4 3장 분량
- 접수처: [www.eduyonhap.com](http://www.eduyonhap.com)
- 문의전화: 032-433-1633

**교육연합신문**  
EduYonhap.com